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Dec. 2020
Vol.8 No.04

■ 2020년 송년호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추수감사주일예배 특별찬양 '감사해' 곡을 연주하는 현악 4중주팀

‘그래도 감사해!’

질은 안개속을 운전할 때면 시력에 관계 없이 시야가 흐려져서 목적지까지는 고사하고 바로 앞 차도도 보이지않게 된다는 걸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럴 때의 운전자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운무가 빨리 걷혀서 짧게나마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된다.

2020년이라는 한 해동안 우리는, 그 운전자의 간절한 기다림처럼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꿈속 같기도 하고 죽음 같기도한 막연한 시간들을 견뎌왔다. 1년이라

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낮은 시간들을 서툴게 채워가기를 반복해야했다.

그리고 12월... 벼랑 끝이라 여겼던 곳에 서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열매가 기다리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찾아오신 구원과 믿음, 사랑과 나눔, 그리고 감사의 간증들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잃은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게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말씀을 가까이하는데 방해되는게 없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음에 감사하고... 광야같은 시간을 지나

오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2020년은 꼭 암울했던 시간들로만 기억되지는 않을 것 같다.

주안예신문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0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못나눈 소식들을 전하고자 12월 송년호를 기획 하였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가심을 확인하면서 마음 깊숙히 숨겨두었던 불신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담대함과 자유함을 맛보시는 주안예교회 가족 한분 한분이 되시길 소망한다. | 오희경 기자 |

■ 최혁 목사의 새해 메시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 아프게 경험했던 2020년이 저물고 이제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안예교회는 이 땅에서 따로 떼어 불러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일에 '쉬네르게오', 개입하시고 동역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말씀대로,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유치한 모습이었을 때, 당신께서 직접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직접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언약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천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며



평생동안 '헤세드'의 사랑을 믿는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50:25 말씀은 요셉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키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국가의 사이드로 만드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분량보다 크신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 최혁 담임목사 |

■ 평신도사역훈련원 결산

온라인 통한 훈련 프로그램 풍성한 열매

주안예교회의 평신도 사역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국인 '평사원'에서는 COVID-19으로 인한 Pandemic으로 영과육이 모두 힘든 시기에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신앙을 다지며, 서로의 마음을 나눔으로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 단계별 훈련을 계속 이어갔다.

성경통독을 한번이상 할수있게 돕는 프로그램인 "주안에말씀"은 제14기와 제15기가 쉬지않고 진행되어서 각각 23명과 31명이 수료했다. 또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인 "주안에삶"은 제15기와 제16기가 진행되었으며기수별로 각 38명씩 모두 76명이 수료했다. 거기에 새롭게 시작된 훈련인 "주안에씨앗" 제 1기 까지 17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서로의 건강상의 안전을 위해서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모든 훈련이 진행되었지만 훈련생들이 받은 은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깊이가 있었음을, 소감문이나 간증문을 통하여서 익히 짐작할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좌절대신 말씀을 읽고, 나누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고 계시는 모든 수료자들과, 모든 훈련 과정을 기도와 사명감으로 준비하신 평



사원의 사역자들과도 한결같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오희경 기자 |

■ 장로임직예배

많은 사람을 섬기고 행복하게 하는 리더 되라



“세상의 기준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느냐가 큰 자의 척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 주셨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하는 자가 진실로 큰 자라고...”

지난 11월 15일 주일 오후 2시, 김경배 오찬국 장로임직예배가 팬데믹이 바꾸어 놓은 독특한 형식과 분위기 속에서 드려졌다. 많은 화환과 선물, 축하 손님들과 잔치 분위기 대신 시무장로님들과 예배 사역자들, 소수의 가족들만 참석하고, 성도님들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했다.

미니멀한 분위기가 오히려 임직 받는 두 분과 참석자들의 마음을 절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크레도 중창단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은 모든 직분자들의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게 했다. 목사님의 ‘섬기는 장로’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45의 예수님이 친히 당부하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와 닿았다. 김경배 오찬국 장로님의 서약문은 진솔한 소망과 기도였다. 얼굴에 투명 쉴드를 한 채 두 장로님에게 안수하는 모습은 2020년에만 볼 수 있는 임직예배 모습이기도 했다.

정필도,김정도, 이광열 목사의 짧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영상 축사 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함께 부르며 섬기는 장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했다.

| 조용대 기자 |

■ 제2회 주안에장학금

한마음으로 모아준 3만6천 달러, 27명에 지급

팬데믹 속에서도 주안에교회에서 자라나는 2세대의 믿음생활과 학업을 격려하고 모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2회 주안에장학금 기부와 수여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여러가지 사정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35명의 장학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해준 3만6천달러의 기금으로 총27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장학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제1회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주안에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생활과 봉사활동에 성실한 12학년 이상 칼리지와 신학교, 신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아 이들이 제출한 신앙고백 에세이를 토대로 심사했다.

9월6일 밸리채플 친교관에서 진행된 장학금 수여 감사예배는 찬양과 감사기도, 로렌



김 양의 에세이 낭독, 이성우 전도사와 탐 박 집사의 격려 스피치로 진행 되었다. 코로나로 행사 순서와 참석 인원이 제한 된

가운데도 축하와 따뜻한 격려로 1세와 2세들이 함께 한 흐뭇한 자리였다. <관계기사 6면> | 조용대 기자 |

■ AMPM 합심기도

AMPM 온라인 합심기도 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벽 6시 5분전 이미 기도방에는 1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입장해 조용하게 눈인사를 나눈다. 날마다 첫 시간에 만나는 낮 익은 얼굴들이다. 인도하시는 이 에스더 권사님의 간단한 일상 나눔에 이어 금주 기도제목이 하나씩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진다.

주안예교회 AMPM 기도팀의 합심기도 모습이다. 원래 하루24시간 30분씩 시간을 정해 각자 릴레이로 드리던 기도 방식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새벽기도 등 대면 합심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기도자들이 5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시간대에 ZOOM을 이용해 함께 기도 드리게 된 것이다. 평소 새벽기도를 드리던 두 채플 성도들이 새벽기도 등 대면 합심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기도자들이 5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시간대에 ZOOM을 이용해 함께 기도 드리게 된 것이다. 평소 새벽기도를 드리던 두 채플 성도들이 새벽기도 등 대면 합심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기도자들이 5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시간대에 ZOOM을 이용해 함께 기도 드리게 된 것이다.

기도팀마다 인도자가 매주 업데이트



되는 주요 기도제목 7~8개 밑에 있는 30여가지의 구체적 소기도제목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합심해서 간구한다.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배와 말씀 순종의 삶은 언제나 1순위이고,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과 기도를 부탁한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담임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ICKidz부터 청년부까지 차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달라는 기도제목도 들어 있다. 그 밖에 선교사님들과 미국을 위한 기도는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다.

AMPM 기도모임에 조인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합시다!

아침마다 만나는 반가운 얼굴 ‘기도는 국경을 넘어...’

지피지기 백전불패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2020년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혼란의 일년을 보내고 있었다. 교포의 삶이 가정, 직장, 교회가 다 인데, 다 닫혀 있는 상태로 9개월을 보내고 있었다. 무슨 재앙이 사람을 만나면 안되는 단절의 세월을 줄까? 나처럼 혼자만의 삶을 살아온 훈련생도 힘든 시간인데 사람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참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세상은 재빨리 줌을 활용해서 세미나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상용화 하며 틈새를 만들어 활동하고 숨을 쉬고 있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나타날 우울증, 자살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듣기 위해 줌이 필요했다. 금융 상품의 지식을 위해서도 줌이 필요했다. 비즈니스 창출을 꾀하는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었다.

그 때 교회는 목장 모임을 위해 창구를 열었고 우리 화면을 통해 보고 싶었던 목장식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담임목사님이 안식당을 맞이하며 주안예교회는 24시간 기도의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고, 평소 새벽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 6:00-6:30 시간에 모여 들었다. 서로 낯선 얼굴도 있었고, 인사 한번 나누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침마다 만나서 같은 제목으로 심령의 무릎을 꿇었더니 곧 친숙해 졌고,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화면을 통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화면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서 오라는 새로운 형식의 인사법이 창출 되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안내 하시며, 역경을 이겨낼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언제 움직이나 보고 계셨던 것 같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며 아침 기도 시간을 보고 계시었다.

새벽이면 낭랑한 음성으로 인사를 나누고 기도가 끝나면 힘찬 음성으로 작별을 고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위로 받고 격려하며 힘찬 하루를 열 수 있었다. 닫힌 듯한 문은 사실은 빗장도 걸려 있지 않은 대로로 통하는 문이었고, 우리는 줌을 통해 국경을 넘어 교제하며, 의견을 나누며, 줌을 통해 선교지와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 하게 된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시고, 아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동역하는 기도의 동반자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그리 소중하고 감사한지 우리 기도팀은 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린다.

올려지는 기도제목마다 응답 받는 기쁨이 더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에 동참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영력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시간이 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새벽을 연다.

| 이예스더 기자 |

■ 임직자들 다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 찾아 봉사'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영원한 암흑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돌아보면 그저 있다 사라질 아무 의미 없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희생을 통해 거듭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고개 숙이며,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끈고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시니 기쁨으로 이 직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안에교회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청지기의 본분을 지켜 교회를 받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셋째, 담임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순종하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넷째, 신앙이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전승되는 교육 사역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위의 다섯가지 서약을 실천에 옮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김경배 장로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먼저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저를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청의의 믿음과 성화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주안에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일체를 믿으며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 무오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2. 교회의 모든 집회와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3.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진솔하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4. 교인의 화합과 평등과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주안에교회 교인의 명예와 또한 교회의 법을 잘 준수하여 질서를 지키며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최혁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전도와 구제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주안에 성도님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아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안에 교회와 저희들을 위해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을 아끼며 사랑으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국 장로

■ 축하와 권면/ 김용수 장로

'관노의 마음으로 충성된 장로가 되길'

먼저 하나님의 권위로 기쁨 부으심을 받은 두 분 장로님의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직을 받으신 것이어서 담임이신 최혁 목사님과 시무장로 및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든든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무장로의 직분을 받은 당회원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질서에 따라 사역하시기로 결단하신 그 마음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 나도록 두 분 장로님들과 한 마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용수 장로

서약하신 대로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도록 당회원으로 모든 궁금한 것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의논하며, 힘써 돕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앞장설뿐 아니라 사랑으로, 주안에교회에서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관노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

을 수 있도록 늘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님들을 돌아보는데 부지런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칭찬 받도록 기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 하는 장로직무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며 동역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두 분의 일생에 가장 귀한 직분을 받는 오늘을 특별히 기억하며 다시 한 번 축하한다는 말로 답사를 마칩니다.

■ 제3회 세마장학금

새해 장학금 지급 기준 성경말씀 암송에 역점

2021년 주안에장학위원회는 사역방향과 장학생 선발 방식을 개선해 보다 의미 있고,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선발기준도 종전의 예배 출석과 에세이 심사에서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는 방식으로 대폭 바꾸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에 확고히 서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학금 명칭도 이스라엘 선조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게 했던 것처럼 세마장학금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



겨 주는 이 사역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집사님 한 분이 많은 금액을 쾌척해 주시는 등 성도님들의 호응도 높다. 2021년 새해는 우리 자녀들의 성경암송 바람을 시작으로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세마, 이스라엘!’

제3회 주안에교회 장학금(InChrist Sh-

ema Scholarship)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합니다.

◆대상- 주안에교회 출석하는 ICKids 부터 EM/KM 대학생까지, 신학대학원생.

◆선발기준-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성경 말씀 암송(시편1, 23, 84, 121편. 야고보서 1:1~11, 3:1~12절.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8:1~11절. 전도서 12장. 빌립보서 2:1~12절. 로마서 12장 전체를 암송시 가산점 부여

◆암송 심사-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일(8월은 셋째주)

◆기타- 암송 실적과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하이스쿨 이상은 신앙고백서 제출

◆장학금 지급시기- 가을학기 시작 전(8월말~9월초)

◆문의-교육부 담당 전도사, 장학위원회 조용대 장로

■ 장학생 에세이

I Believe that 'God has a Whole new life planned out for us'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affected my life very personally. One day, my 95 year old great grandma, whom I was living with, was sent to the hospital because she was having a hard time breathing due to her heart condition. After dropping her off to the hospital we got a call that she tested positive for the Coronavirus. Our whole family was worried and decided to take the covid test. Luckily my mom, sister, and I tested negative but my grandparents tested positive. This was the beginning of my journey.

My great grandma was in the hospital and my grandma was starting to get severe symptoms and all I could think about was how to help them. After my great grandma's condition got better, she was discharged and was brought back to my home. My aunt, who is a nurse, came over to my house, knowing that I wanted to be a nurse, to teach me how to take care of them and how to make them feel comfortable. I then started checking everyone's vitals day and night, logging them into my notepad to make sure that nothing unusual came up.



Lauren Kim

like we were supposed to, I was taken in as well so that I can translate everything for her and the doctor. We were taken to a special, isolated room where I was given a gown and a new mask. I saw how all the doctors and nurses were risking their lives to help others which inspired me a lot.

After coming home, I continued to check on my family everyday and saw that they were getting better. We then decided to test my great grandma to see if she still had the Coronavirus but thankfully, she tested negative. I was beyond excited and happy. Looking back at the whole situation, I realized that God gave me a gift to be able to help others. I realized that God protected me from the virus so that I can help my family and I

But one day my grandma's oxygen level went down severely to the point where we had to take her to the ER. But instead of dropping her off

believe that He will protect me in my career to help others as well.

Throughout this whole pandemic and being quarantined at home, I realized a lot of things. I realized how amazing and powerful God is. I think God placed Covid-19 onto this earth so that I can really know an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God and how thankful I should be for everything He has done for me. Before the pandemic, I would take everything for granted but now I realize how thankful I should be. Without this pandemic, I would have never fully understood why I chose to go into the career of nursing, and without this pandemic, I would have never known the importance of everything.

Although it is hard right now, I believe that God has a whole new life planned out for us. I am so thankful that God protected me throughout this pandemic and allowed me to give the help that my family needs. I hope that in the future I can use this gift that God has given me to help others and at least put a smile on their face.

■ 골든벨 성경퀴즈

총 54명 참가 열기 속 누가복음 지식 겨루기

12월 6일 영어중고등부와 영어대학부가 함께 골든벨 성경퀴즈 대회를 가졌다. 총 54명의 학생들의 참여하였고, 공부와 문제 범위는 누가복음에서 발췌하였다. 총 35개의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은 누가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해 실력을 발휘했다.

카훗이라는 온라인 퀴즈 게임 형식을 통해서 답 정확도와 스피드를 통해서 점수가 주어지는데, 치열한 경쟁 끝에 4명의 학생들이 결정되어졌다. 1등은 대학생 Caleb Yun, 2등은 Solomon Yun(8), 3등은 Alexander Yun(6), 4등은 Gianna Hong(7)



으로 결정되어졌다. 특별히 Solomon과 Alexander는 형제로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공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성경퀴즈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교육 부에서 힘쓸 예정이다. | 이성우 전도사 |

■ 동성애 세미나

‘성과 결혼의 흔들림 없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과 결혼에 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일관된 원칙은 이성간의 결합과 연합이다. 그러나 세상 풍조와 문화의 영향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크리스천, 특히 교회 안의 젊은이들의 정체성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한인 가정들의 현실은 부모와 자녀들과 이 주제에 대한 대화가 터부시 되고 있고 벽이 높아져만 간다는 것을 직시하는 시간이었다.

ICY교육부와 EM에서 바이올라대학의 존 매리웃 교수(사진) 를 초청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차례 동성애 세미나를 가졌다.



이성간의 결혼과 성 이외의 소위 성소수자 ‘LGBTQ+’ 개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결코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님을 강조했으며, 사랑할때

는 꼭 올바른 진리의 기준위에 있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빙자해 비성경적인 성과 결혼관까지 용납해서는 안되며, 그들 주장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사회 변화와 문화 속에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과 결혼의 의미를 왜곡하는 주장에 휩쓸리면 안되는 것임을 부모들이 먼저 확고하게 깨닫고,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되새기게 되었다. | 학부모 |

■ 자녀들과 함께 보는 영화/ ‘천국에 다녀온 소년(Heaven is for Real)’

네브래스카주 임피리얼. 4세 소년 콜턴이 수술받다가 죽음 직전 깨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며 모두 기뻐합니다. 실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콜턴이 천국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실화 '천국에 다녀온 소년(Heaven Is for Real·사진)'이 물음을 던집니다. '천국은 희망에서만 존재하는가, 실재하는가?' 목사인 콜턴 아버지 토드는 아들 말에 몹시 놀랍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봤어요." 교인들도 술렁입니다. "이러다 우리 교회가 서커스장 되는 건 아닐까요?"

증명 불가한 콜턴의 목격담이 이어집니다. 더 혼란스러워하는 토드에게 아이가 이 만남도 들려줍니다. "엄마 배 속에서 죽은 내 누나가 날 안아줬어요." 아이에게 한 번



도 들려준 적 없는 이별이어서 토드 부부는 비로소 기적에 대한 의심을 거둡니다. 상실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대단원은 토드의 설교 장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꼈다고 간증하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미 천국을 봤습니

다. 첫아이 울음소리에서, 의사와 간호사 손과 소방관의 용기에서, 부모의 사랑에서. 그런데 천국을 보고도 우린 자주 두려움이라는 지옥을 선택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린 천국이 보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제 마음을 열어줬습니다(He opened my heart to love). 이 사랑이 지금 제게 요구합니다. 곁에 주님이 있기에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라고."

끝부분 다른 사례도 실화입니다. 리투아니아 6세 소녀가 2년 전 천국에서 본 누군가를 그리는데, 인터넷으로 이 그림 속 얼굴을 들여다보던 콜턴이 환하게 말하는군요. "그분이예요." 누군지는 가려줍니다.

| 조선일보 외화번역가 이미도 칼럼 |

새출발, 새생명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윤술, 권성재 결혼



오예슬, 조영 결혼



장주성, 김지연- 장하성 출산, 장하라 돌



곽재은, 김혜민- 곽하늘, 나라 돌

■ 주안에 패밀리

사랑하는 여동생의 앞날을 축복하며...

3달전쯤 여동생으로부터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올해 결혼식을 하고싶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은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기에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한, 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2003년에 미국에 유학을 온 이후에, 저희를 대신해 늘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오빠인 저의 몫까지) 잘 섬기며, 한의원을 경영하며 한의원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에 늘 힘쓰는 자랑스럽고 고마운 동생이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니,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자주 전화로 안부를 서로 물으며, 기도 제목을 나누어왔던 일상이 힘들어 지지는 않을까, 아쉬운 마음이 잠시 들

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생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니 그런 감정도 잠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방문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온 가정이 동생 결혼식 예매에 하나님께 함께 예매 드리고, 축복하기 위해 한 달여의 시간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결혼 예매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예매로 시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원 안수집사 |

코로나 속에서도 무럭무럭 주안에 꿈나무!



김현태, 박성은- 김태민 출산



최다니엘, 최인희- 최예나 돌



구조섭, 최빛나리- 구하윤 돌



조민철, 이영인- 조한결 돌



송서현, 김민재- 송루하 출산



이카일, 이태영- 이예슬 돌



정수영, 정실비아- 정연아 돌

■ 코람데오 추수감사절 이벤트

화면 속에서의 만남, 더 설레고 따뜻

오랜만에 주안에교회 코람데오 청년들과 비대면으로 모이는 행사에 초대되어서, 설레면서도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먼 거리 탓에 코람데오 청년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았던 터라, 오랜만에 만나면 즐거우면서도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행사에 참여해보니, 비대면 미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줌 화면으로 본 청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게임을 준비한 청년들 뿐 아니라, 평소 코람데오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도 적극적으로 어울리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기념 코람데오 줌 미팅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청년들을 봐서 반가웠을 뿐 아니라, 비록 비대면으로 만났지만, 청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현재 여러 사회적 상황 때문에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안전한 비대면 행사에 초대되어서 감사했고, 또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꼭 사회적으로 조금은 더 안



정되어서, 모두 안전하게, 대면으로 반갑게 만날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때까지 코람데오 청년들 모두 안전하게, 몸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 백휘재 청년 |

■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의 약속, 나의 소원

지금까지,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안개 낀 통로(COVID-19 Pandemic)를 오랫동안 견개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생각하게 했던 시간들이었



유연화 권사

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대면예배와 교제와 일상의 모든 사소했던 일들이 그리워졌고 믿음과 의지가 느껴져갈 즈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힘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한 점 한 획의 오차도 없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힘입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고, 육신은 약해져가지만 말씀의 내면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며, 마귀의 체계에 담대하게 맞서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셔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어떠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들을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주신 말씀으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알리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로 그 믿음의 눈물로 드렸던 첫사랑의 예배를 잃지 않는 것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언약을 세우신 선택하시고 인자하신 헤세드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범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기를 소원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갈라 놓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안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금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많은 전염환자가 생긴다고할 때에 나는 중국의 환경과 의료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그곳에만 확산되는 현상이고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일로 생각 하였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미국에도 전염환자가 많이 생기고 급기야는 3월 중순 필수적인 업종을 제외하고 여타 모든 점포는 영업 활동을 중지하고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LA 시장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저희도 15년간 운영하던 Flower Factory화원의 꽃과 실내 식물 파트는 문을 닫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정원 나무, 과일 나무와 채소 모종 판매는 필수 업종에 해당되므로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 황망한 상황에 처한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장차 비즈니스

합을 줄이는 가정 활동으로 실내 식물 관리와 텃밭 채소 가꾸기를 권장하는 특집들을 발행하였다. LA 동포 신문들도 이런 실내 식물과 채소 가꾸기의 이로운 점을 소개하였고 그중 J일보는 나무와 채소모종을 구입 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 Flower Factory와 다른 동포 업소 한곳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신문 1/2면에 걸쳐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LA에 소재한 3개 한국어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나를 초청하여 이런 과일나무와 채소 가꾸는 요령을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나는 각각 다른 날짜에 이들 방송에 출연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 하여 주었다.

이렇게 한 2주 정도 지나 3월말쯤 되니까 갑자기 저희 회원에 손님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회원들 절반

위로와 힘이 된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운영에 대한 대책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감사한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였고 매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두려움과 실망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비록 절반이긴 하지만 비즈니스를 열었는데도 십 여 일 동안은 하루에 손님이 한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았다. 보통 2월부터는 정원 공사가 많고 과일나무도 새로 심으며 채소모종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라 모두 많은 재고 준비를 했는데 어찌해야 할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금년은 6월 말까지 이 모든 재고를 반드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때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집에 머무르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후 2주 정도 지나자 주류 언론들이 가정에 잠시 머물게 된 미국 국민들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무료



나형철 장로

정도만 오픈하였는데도 채소모종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 평소 다 오픈한 정도만큼의 손님들이 오게 되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믿고 감사하였다. 또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신문 보도와 방송 출연으로 무료로 많은 간접 광고 효과를 보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을 굳게 믿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원래 금년 6월말에 비즈니스 운영을 끝내고 은퇴하려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지난 6월 30일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끝내고 은퇴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뿐이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COVID-19 이 재확산 되고 기승을 부리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힘들어, 열병의 마귀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불쌍한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길 원하며 모든 결정권을 돌려드립니다.

■ 그래도 감사해

'God has a unique way of looking out for me'

COVID-19 is still an interesting rodeo for me. I would never have thought that we would get into a "Great Depression" kind of crisis and experience it ourselves. My life is limited to being glued to the house. I cook in the kitchen until my sink is filled with dishes. My college major, Audio Production, is very hands on learning. The classes that I've participated in were supposed to be in recording studios on campus, but I have been in Zoom classes since March.

The pandemic made my college experience less exciting and motivating to work, but something happened this week that is teaching me that God sees me. He has a unique

way of looking out for me when I feel like I just spilled water all over my dining table. I thought this pandemic would keep me from graduating, or I would not even be inside a studio. Students are struggling and trying to prioritize things to take care of, but God is having me be in a place where I can be using what I am learning from my professors. I'm more motivated now and can thank God for changing my outlook on life during this pandemic!



Justin Ma

'God's plans are always perfect!'

Covid-19 has changed my way of viewing life circumstances. What I once would have thought were unfortunate events are now what I consider changes that come with God's blessings. Before the coronavirus became a global pandemic, I was finishing up my last semester of high school and was very excited to be in Boston on a college campus. My plans for the freshman year experience was shattered when it was announced in July that my school decided to go completely remote for the fall semester. My prayers went from asking for a good roommate and a nice dorm room to asking for good professors and motivation. Gratefully, God answered my prayers and has blessed me with amazing professors who make learning really enjoyable.

Despite the sudden change of everything being online, I was pleasantly surprised by what God had in

store for me. While my plan was to study on-campus in Boston, God's plan was different. Knowing what was best for me, God kept me with my closest friends and with my ICCC family while allowing me to build relationships in a new school in the very comfort and safety of my home sweet home. Now, with my first semester coming to a close, God has blessed me with my second semester also being online again so that I have even more time to grow and be prepared for being in a completely new environment and building my career. I have learned that my plans will not always align with God's plans, but God's plans are always perfect. It is a matter of obeying Him that makes all the difference.



Jane Ma

'역경이 이끄는 은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쫓아 열심히 노력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헤매며 내가 만든 이상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상처받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김선희 권사

저도 기복 신앙에 매여 세상적인 복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 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잘못된 신앙관 속에 살던 중 주안에 교회에서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철저한 회개와 회심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키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족한 환경 속에서 미국 유학까지 시켜서, 큰 아들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로, 둘째는 명문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가로 성장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만나 가정까지 꾸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맡기신 두 아들을 잘 양육했노라'고 숙제를 다 끝낸 것 같은 여유로운 행복을 느낄 즈음, 전도사 아들의 가정이 파탄 나고 어린 세 손자가 거의 버려진 상태가 되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갑자기 닥친 역경 속에서 제가 그 동안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은 우리 가정에 닥친 고난이 나의 많은 죄값이라는 죄책감과 죄의 값으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보다는 점점 나약해지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여에 걸친 목사님의 말씀에서 광야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유익' 12강을 통하여 그 동안 제가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을 다시 한 번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고난 자체로만 바라봄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배로 갖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저의 발길을 주안에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만남으로 늘 불안하기만 하던 저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얻게 하시고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의 마지막 여정에서 만나 뵙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동안 저에게 역경으로 다가왔던 환경들이 오히려 임재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스럽기만 하던 아이들 엄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불쌍한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책임하게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떠났다고 원망스럽기만 하던 며느리가 어느 때 부터인지 저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다는 고마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안에 교회의 교인 되게 하고, 그 동안 듣지 못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갈급했던 저의 영혼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뵙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 주안에 결혼

‘굳이 결혼할 필요가...’ 라는 생각에 변화가



주안에교회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안에 결혼” 이라는 세미나를 9월 24일부터 6주간 진행했다.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사귀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면 45명의 수강생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강의를 Zoom 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를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준비하도록 기초부터 익혀나갔다. 목사님께서서는 특별히 “성서적 결혼” 에 많은 비중을 두셨으며 이 시대의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섯 번의 강의를 이끌어 가셨다. | 오희경 기자 |

김윤기 성도 결혼 세미나를 듣기 전에, 저는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결혼해서 괴롭게 사느니 그냥 혼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한 나만의 결혼관을 정해놓고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 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게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세미나를 하나씩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란 것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이 제 행복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써 생각하고 이 세상 관점과 똑같이 거래의 일종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뤄진다는 말을 듣고나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세미나를 듣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잘 알게 되었고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세진 성도 살아가면서 직접적/간접적 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의 퍼즐조각들을 완성할 수 있는 설명서를 받은 기분이 든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 속에서 배운 점들, 주위에 자칭 연애 코치해주는 사람들의 지극히 자신의 가치관에 빚대어 전달된 불필요한 지식들이 지우개로 지워지며, 이기적인 기준들로 그동안 나를 저평가했던 것들이 보상받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나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남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닌, 성경적으로 꼼꼼히 적용하며 스스로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고, 짝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정비 하는 세미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위로가 되는 말들로 낮아졌던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었다. 그간 멈춰있던 배우자 기도를 다시 해야

겠다. 남의 배우자가 아닌 내 배우자 기에 하나님께 더욱 더 많은 대화로 구하고 구해야겠다.

조혜리 성도 처음 주안에 결혼을 시작할 때 대체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나, 나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첫 강의 때 남자여자의 뇌구조와 다른 점을 설명해주시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설명을 안해주셨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흥미가 생기게 강의를 해주셔서 그 다음 시간이 기다려졌다. 예전에 나는 결혼을 꼭 하고 싶어했는데 요즘에는 결혼을 굳이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혼자의 삶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고 결혼과 가정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크게 와 닿았다.

결혼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결혼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배우자 앞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결혼식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결혼을 안해도 되겠다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강의를 들으면 들을 수록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하였지만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바뀌지는 않았다.

강의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던 내용이라 많이 기대가 되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을 맛보았다. 저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내가 과연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혼생각이 없었던 내가 주안에결혼 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만남을 가질수 있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다.

박익준 성도 주안에 결혼세미나를 마치며 가장 기억에 남고 다른 것은 잊어먹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미래의 결혼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부분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신 부분이였다.

목사님께서서는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먼저 주기 위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알려주셨다.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랐으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결혼관과는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교만한 생각이 어느 정도 머리에 있었던 나는, 정직하게 말씀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다. 나는 나이도 한참 어린 약혼자에게 먼저 베푸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기보다 항상 공평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희생적인 사랑과는 많이 벗어난 이해를 따지고 계산적인 생각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사랑을 주기 위해 결혼한다는 말씀을 배우니 마음도 더 편해지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조금 이나마 내려놓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게 된 거 같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아내를 교회같이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한다.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나니 자유함이...’

지난 봄 1기 “회복” 편에 이어 2기 “자유” 편을 이번 가을분기에 가졌고, 시간은 오전/오후반 두 구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자유” 편의 주제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 15:5)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과 성경의 원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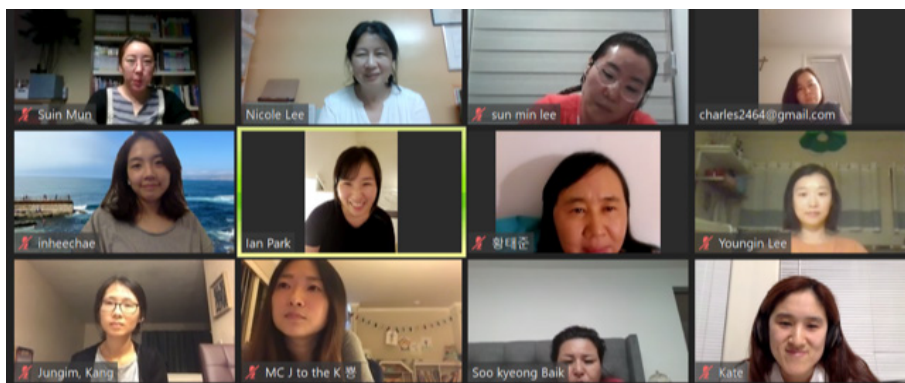
함께 나는 마더링스킬 주제로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장난감/전자용품, 대중매체, 경계선 세우기, 대화, 재정훈련, 가정예배 등이었고 삶 가운데 실천해보는 미션을 통해 자녀와의 헌주소를 느끼고 발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니콜 전도사 |



문수인 집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낯설어지면 고향을 지르고 야단을 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대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길때쯤 마더와이즈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태영 집사 엄마로서의 배움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또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아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소의 집사 마더와이즈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치관 및 내가 고쳐야할 생각들을 많이 느끼게 했던 시간이었고 과정중에 제가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마무리하는 엄마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꼼꼼한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뭐든지 잔소리꾼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회개가 시작되더군요... 무엇인지 알아서 자기 할일을 계획성있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의 계획과 자신만의 스케줄은 무시했고 엄마의 리모콘대로 움직여야 했던 우리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현주 집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좋은 엄마, 친구 같은 엄마라는 포장 속에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훈계해야 하는 것을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양육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이 열매를 맺게 됨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

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김지희 집사 이번에 참 많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그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온 생명으로 남편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관계할 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분이 나에게 생명 되셔서 나 ‘대신’ 그 자리에 가 주신 것이 다시 한 번 큰 은혜로 다가왔다.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깨달아졌을 때, 내 안에 ‘자유함’이 느껴졌다.



■ 주안에씨앗 1기

믿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어요

40년이 넘게 예수를 믿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해 주안에씨앗이 기초적인 공부라로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신청했는데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초가 없으면 꼭 배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누가 물어보면 내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곧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질문인데 “말씀이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성도라고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한 설명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경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읽으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데 앞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도의 중요성을 참 많이 배웠는데 제 마음에 닿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믿는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대답할 것을 예비했으니 전도에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시고 확실하게 배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황인숙 권사

■ 주안에말씀 15기

'Declaring to the enemy we are the Lord's'

During difficult times like a covid pandemic, it may be challenging to remember thankfulness; however, I feel blessed to have found an opportunity in the desert: ICCB Bible Reading.

Juggling full time work and three young children would have made it prohibitive under normal circumstances to attend an in-person Bible reading class for three months together with my husband; however, covid paved the way for a Zoom version of the class which gave us the flexibility to participate.

We got to enjoy the discipline of reading and meditating on God's word in community. There is something to be said with having the word read out loud - proclaimed throughout our home: like declaring to the enemy we are the Lord's. To be reminded of God's pursuit of us, His love for us. And His loving reproach to live not for ourselves but for His kingdom. Thank you, Lord for the blessing in the desert. | Laura Park |

■ 그래도 감사해

간헐인 삶 속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

“손님! 샌드위치에 달걀 1개 넣을까요? 2개 넣을까요?”

“3개 넣어도 좋아요”

“저희 카페 메뉴에는 3개는 없어요, 다른데 가보세요”

“아!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맘대로 주세요”

우리집 아침식사 카페놀이 이다. 갑작스레 당면한 covid19 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건너뛰던 아침식사를 챙기게 되면서 또 하나의 새롭게 추가된 일상의 모습이다.

식사 준비 대신에 음악과 함께 책상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는걸로 하루를 시작하던 여유는 사치가 되어버리고, “배고파” 라는 음성을 들으며 눈을 뜨면서 “또?” 라는 리액션을 반복 하다보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평범한 문장이 진리의말씀 처럼 떠올랐다. 이왕 하는거 즐겁게 하기로 마음먹으니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그 중에, 어릴적에 동생과 즐겼던 소꿉놀이를 컨셉으로 정하고, 예쁜 앞치마와 헤어밴드까지 갖추고, 카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준비하는 아침식사는 엔돌핀이라는 재료까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샌드



위치가 만들어졌다, 거기에다 향 좋은 holiday blend 커피까지 곁들이면, 아이러니 하게도 Covid19 이 가져다준 선물같은 시간을 즐기게 된다.

또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나도 몰랐던 내속에 잠재된 색다른 재능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연히 구입한 수세미 실을 굴리는게 거슬려서,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난생처음 수세미뜨기 라는 걸 도전해 봤는데 믿기지않을만큼 훌륭한, 수세미라기 보다는 작품이 탄생했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새벽시간에 집중해서 수세미 뜨기를 하다보니 쓸데없는 잡념이 사라져서 좋고 한 개 한 개 완성 될 때마다 성취감에 젖어드는 기분 또한 좋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처음으로 닥친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 내면서 나태하게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부정적인 의견만 나열하기보다는 지금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낸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말씀 15기

준비된 빈 그릇만큼 부어지는 큰 은혜

매년 년 초에 작성하는 ‘올해 할 일’ 리스트에는 항상 ‘성경 읽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2독내지는 3독까지도 해야지” 하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만 몇 개월 지나다 보면 “1독만 해야겠다.” 라고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올해에는 신약만 읽어야겠다.”라고 결론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나태한 나에게 이번 15기 주안에 말씀에 참여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단 4개월 만에 1독을 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겪은 영적 전쟁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의 감동이 있었으니까요.

성경 말씀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여러번 읽으면서 그때마다 감동이 되는 구절에 밑줄을 긋고는 해 왔기 때문에 저의 성경에는 밑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읽으면서 보니 밑줄이 없는 구절에서 더 큰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는 성경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인데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밭 상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 밭이 넓게 준비 되어 있는 만큼 말씀의 은혜가 커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과부된 생도의 아내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여 준비된 그 그릇들이 가득 채워 질 때까지 한 병 남은 기름이 떨어지지 안 했다는 열왕기 하 4장 말씀과 같이 나의 준비된 빈 그릇만큼 말씀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채 준비 되지 않은 마음의 그릇 때문에 놓쳐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말씀을 받을 적 마다 큰 그

릇을 준비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어김 없이 사탄의 방해공작이 펼쳐 지나 뜹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에서 노련한 삼촌 사탄이 이제 갓 입문한 조카 사탄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의 은혜를 맘껏 받겠다고 나서는 저에게 저의 약점을 틈타는 끊임 없는 방해 공작이 시작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욕신의 고통이 마음과 정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 갑자기 찾아온 치통으로 시작해서 종래는 대상포진까지 생겨서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주안에 말씀 15기가 완전히 끝나는 날 나를 괴롭히던 질병을 들고 찾아온 사탄도 물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회원들과 나눌 수 있었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15기 주안에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님들과 주안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습니다.



조충홍 장로

■ 주안에말씀 16기

말씀에 비취진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주안에말씀 1, 2, 3권 훈련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주안에말씀 훈련을 시작할 때에는 기존에 알았던 단순히 성경공부를 겸한 큐티와 성도간의 교체시간으로 알고 참석했는데, 출석 시간을 엄수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공부할 내용을 예측해야 하고, 또 배운 내용의 소감문을 제출하라는 말씀에 첫날부터 부담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음과 환경이 어수선하여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훈련하는 분들과 한마음이 되어 말씀 훈련에 집중해오는 중에 많은 깨달음과 회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안에말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취어 나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은 오직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를 행해왔던 삶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올바르게 서있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을 명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이 저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땅의 만사 형통이 주님의 축복으로 착각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받으려 했고,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한 기도와 종교 생활, 봉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인 ‘하나님의 인도’에서 물질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상의 복임을 깨닫고 하나

님의 꿈을 함께 꾸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통해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나의 자아를 일깨워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말씀 안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일해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사람의 잘못된 구습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로 영의 호흡을 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말, 행동,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 경건한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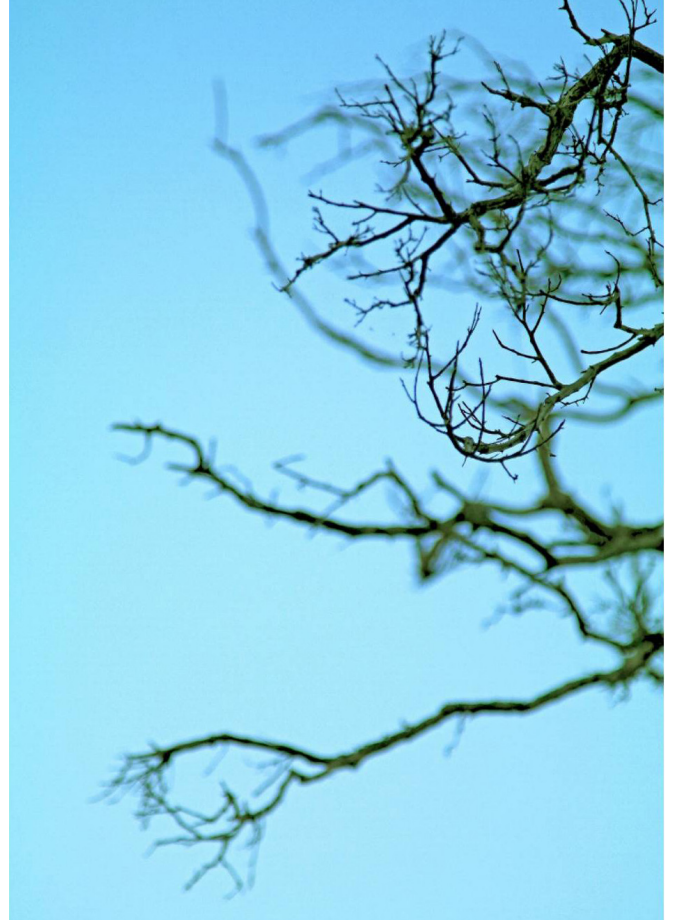


석광수 집사



얼굴 없는 봉사 손길

8-9개월 이어지는 코로나로 예배와 집회가 막힌 텅 빈 교회, 언젠가 돌아 올 성도들을 기다리며 매주 빠짐 없이 교회 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은 토요일 늦은 오후 시간 벨리채플 유리창을 닦고 있는 한 여집사님의 뒷모습.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양상한 영혼의 양식은...

하늘은 맑고 푸르나 이 나무는 물을 못먹고 살아서 이렇게 메말라 죽어간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물을 못마시고 살면 죽어간다. 겉으론 멀쩡해보여도 맘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도 모르는 와중에 이런 현상이 온다.

사람들은 나무와 다르게 물만 먹고 살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을 못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나무처럼 메말라간다. 하나님과 매일 매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양식처럼 받아 먹어야 한다.

100세 시대, 남은 삶을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

| 사진, 글: 최호기 기자 |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히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민유선,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더, 임용자,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